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1호 【무제 제25760호】 주제 106 (2017)년 9월 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민족사적대승리를 또 다시 안아온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 진행

【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가 7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가항력적힘을 단방에 펼쳐주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의전진과 원만한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준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병진의기지를 더 높이 추켜들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에 충만한 인민군인들과 각계종근로자들로 차แน่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들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오니다》,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등의 구호판들과 꽃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각계종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빛나는 조국》 노래주요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호복, 조선인민군장령 리용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명호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공화국창건 69돌을 앞두고 초강대국건설의 피성을 다진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충정의 선봉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뚝뚝쳐나가는 원만한미래를 앞둔 영광의 순간이라고 밝힌 후 민족사적대승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9월의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백두의 단력과 배양, 불멸불후의 애국선신과 당의 위업에 공헌한 충직한 핵무기개발자들의 결사투쟁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박강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확언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 강원도군민경축대회장에서 -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단방에 펼쳐서 말리마속도창조대회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력, 석탄, 세멘트, 비료 등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에서 생산성상화의 동력을 세차게 올림으로써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포악한 경제봉쇄를 산산이 짓부서버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전선의 불철을 일으킨다면 철락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만리마속도의 격진장들을 청년만으로 돌궂게 하여 날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안경근, 조선인민군장령 리금길,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룡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원만한미래를 위한 조전동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진총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장엄한 시기에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온 나라를 끓여주는 환희로 불궂게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비상한 속도로 주체의 령강국, 세계적

인 군사강국으로 거언히 솟아오르게 된것은 최대의 원소승리가 있는 것이다.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리더십과 불멸주의의 헌신에 의하여 이룩된 기적적사건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뼈에 새기고 전국의 만민의 성세, 방계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마음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전선의 불철을 일으킨다면 철락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맹세한식분열정신을 세차게 일으켜 만민의 전진총돌격세를 비롯하여 갖추어 결전의 시기가 오면 원수의 아성을 단숨에 초토화시켜버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가을전기와 낱알떨기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흉내, 여름내에 지어놓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 뜻깊은 올해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세월을 주름잡는 말리마속도, 위훈정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디에서 청년강국주의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임은인, 조선인민군장령 윤영식, 해주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영원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원수 미제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적인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원만한미래를 위한 절대적인 신념을 뼈에 새기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도할 총지휘를 마음속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제병, 은물방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전진, 경영전략을 짜고들고 생산성상의 기술개선과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올해 자기 단위 일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후방의 가물피해를 가시고 미련한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는 일로써 알곡증산으로 비세와 적대세력들의 경제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해수학개조수년건설을 비롯한 당의 숭고한 인민사상이 깃든 건설물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중공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훈련혁명 5대방첩관찰에 총대진하여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합치게 달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신정남, 조선인민군장령 오병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명광희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행성을 전진시킨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당 제7차대회 제시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략적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밝힌 비대한 핵전투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그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이룩한 쾌승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드리는 최대의 경이이고 총정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멸체도를 따라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드림이 실현되리라 믿고 있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중공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훈련혁명 5대방첩관찰에 총대진하여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 주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떨려 뛰놀며 땅이 정해준 침로를 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담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구마디에서 강원도정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철을 더욱 세차게 지켜 올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반미대결전의 시각이 닥쳐오면 열렬의 보복의지로 심장을 끓여이며 세일면서 달려나갈 비세의 승풍을 끌어들이고 기어 최후승리의 전승세대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래화, 조선인민군장령 리용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송태원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국가핵무력건설의 결승에 서서히 반미대결전의 필승의 보검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로켓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준엄한 첩보이며 침략의 아성을 빈틈없이 뒤엎는 핵사의 쾌승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눈부신 최대사건을 맞이한 원만한미래를 위한 병진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대진해나갈 불타는 길에 넘쳐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미치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디에 모아 박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일관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민합동전선과 도수산사업소건설을 비롯한 경제발전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약적혁신을 일으켜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이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답게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말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거세치게 일으켜 오늘이 이 경사를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김일성도당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장령 위정성일,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현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민족사적대승리를 맞이한 온 나라 원만한미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충정의 선봉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뚝뚝쳐나가는 원만한미래를 앞둔 영광의 순간이라고 밝힌 후 민족사적대승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핵무기개발자들의 투쟁기풍, 창조적으로 단선발전소를 비롯한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승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군민경축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원만한미래의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신말씀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린 말씀에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들은 《나카자 조선이 병전 앞으로》 노래주요으로 끝났다.



- 함경북도군민경축대회장에서 -



- 평안남도군민경축대회장에서 -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 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7일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국방과학자들은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지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적투쟁의 길에 불면불후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열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림상이 모셔져있는 흉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을 우러러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보급을 마련한데 대하여 총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며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바라는 위대한 장군의 념원이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 나갔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삼가 인사할 드려었다.

그들은 불세출의 진실적위인들

대대 우리 인민과 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흥도의 정이 어딘 혼잡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헌지지도와 의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진동차, 배, 철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업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자 조진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최강의 핵탄으로 결사보위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7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총서관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울작업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명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선혁명박물관이 세상에 돌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태양조선의 대극보관으로 꾸러진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머리 호실함에 전지된 사적품들과 사적자료들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등에서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시였으며 자위적국방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드시어 전인민당의 합당한 선군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고 핵보급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자료와 전시물들앞에서 그들은 오래도록 말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변심을 모르는 전사들의 총정의 세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수관》을 돌아보면서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빛나는 역사를 깊이 체득

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모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우리 조국은 불멸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음을 다시금 짐작하였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핵무력건설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총정의로 받들어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계속함으로써 핵무산대국의 선군혁명명기를 영광스럽게 다져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전조선의 기치 아래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존엄, 불굴의 기상이 만천하에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친필명령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모든 재중조선공민들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기쁨과 환희로 끓여버리게 하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은 정양의 하늘가를 경건히 우러러 온갖 합력적경을 단신으로 채치시며 만민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특대사변을 또다시 안아오시어 온 민족이 갈망해온 강국명운을 가슴 푸르히 풀어주시는 최세의 친솔명장이며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감사의 관절을 올립니다.

얼마전까지 세계가 보던듯이 강유력한 주체단위의 비행운을 우주에 새긴데 이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뜻있는 9월에 또다시 온 지구를 위문하며 장쾌하게 울려 퍼진 수소탄시험은 외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지위, 자위로 존엄을 불멸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총정의 보고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양의 일대 파시도 됩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장작용 수소탄시험을 단행함에 대한 명령에서 선포시명! 100% 조선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이 총격적인 소식으로 지금 온 행성이 떨쳐 끓고있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전보적인민들은 물론 서방인들까지도 조선이 참 잘한다, 조선의 특대사변은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제세소동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평하면서 공화국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열렬한 지지찬물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일에 게거품을 불고 《군사적대응》이니, 《예방전쟁》이니 하고 고이대며 미친 송냥, 이마냥 날뛰던 제국주의우두머리 미국은 주체적핵강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이번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에 완전히 넋을 잃고 살구멍을 찾아 허둥대고있습니다.

참으로 핵무산장군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선군명도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세계화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오늘의 민족사적대경사를 되새겨볼수록 또 한차례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어 위해 불면불후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영상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민족사에 특기할 편이온 대승리들은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방사장들을 찾고 다 찾으면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만로고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사의 의지를 안으시고 직물의 총구가 지척에 도사리고있는 오성산의 가질봉초소와 관봉정을 찾으신것은 역사의 그날들과 작은 고무 단정들을 다시고 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심소소들을 찾아가신 눈물겨운 희곡을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장권과 전횡에 굴복하여 저들의 리익을 최성당하면서까지 미국에 고분고분하고있지만 오직 우리 조국 주체조선만이 할 소리를 다 하고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까지도 임의의 시간대, 임의의 장소에서 마음먹은대로 미쁘고도 좌용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오늘과 같이 강대하고 위대해질수 있었던것은

대대로 최세의 친솔위인들을 모시었기 때문입니다.

과만잡고 극열잡던 민족수난사에 풍지부를 찍으시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범할 못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세계적인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누리며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진정한 거제가 세세년년 길이길이 칭송하고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의 구세주, 대성인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우하시고 위대하고도 위대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명수로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어찌도 그리하였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쫓아갈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최후승리의 확신과 튼튼한 배심을 가지고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애국총정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비록 어역에 있지만 세계가 우러르는 열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특색있게 기여함으로써 애국의 삶을 더욱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인성은 우리 온 겨레와 세계 전보적인류의 절실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의의 정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정권화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시며 핵무력보급의 지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제106 (2017)년 9월 4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국 심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7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김일손 중앙상임위원회 고분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제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부하리 무릭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6일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사리대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6일 리용외무부상에 외교단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만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어왔음을 다시금 짐작하였다.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핵무력대업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총동각전에서 사상인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전보혁 명박물관과 보전보혁전시회, 경찰관주재소, 민사부소, 소방회관을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위인상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자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핵무력에서 개척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어왔음을 다시금 짐작하였다.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핵무력대업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총동각전에서 사상인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전보혁 명박물관과 보전보혁전시회, 경찰관주재소, 민사부소, 소방회관을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위인상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자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핵무력에서 개척된

소연지봉, 간백산, 무두봉 밀영을 답사한 행군대원들은 핵무산일일고향집에 도착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에서 그들은 조선의 제일봉으로 거언히 솟은 정일봉을 우러르며 끓여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몸소 지으신 충시비알에서 체질을 하고 그들은 핵무산밀영을 돌아보았다.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답사행군대원들은 핵무의 기상과 정기를 한눈에 지나시고 빨메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선군혁명의 장구한 모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되새기였다.

답사기간 행군대원들은 정봉, 전장, 무두속영지와 신사동 혁명전적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등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철천지공을 세우는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정사용위정신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을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받아안았으며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일떠선

핵무산영웅청년탑전소도 참관하였다.

그들은 답사행군집에서 항일 빨메산참가자들의 최상기연구 발표모임과 혁명가요합창공연,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추경, 달빛경기, 작품발표회, 체육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들도 진행하였다.

핵무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의 결의모임이 삼지연대기념비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혁명전열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르며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앞장에서 꽃대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갈 불타는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결봉, 선군의 붓대를 높이 들고 핵무의 혁명전통을 만대대 빛내이며 지역경제대고조의 격전장 마다에서 최선적핵개발활동을 활발히 벌려 만민미선군자애회를 향한 천만군민의 총동각정을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 혁명적정열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무모하고 어리석은 객기를 부릴수록 말로가 더욱 비참해진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외무정책선구성에 따라 9월 3일에 단행한 주제조선의 대륙간판도메프장작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특대사건이다.

주제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으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구동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협이 크게 억제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민중적한 담보가 마련된것은 세인이 격찬하여야 할 인류사적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또다시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그 무슨 유엔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걸고들면서 새로운 반공화국제와 압박을 몰아오려고 발악해 나가고있다.

그 앞장에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피괴들의 추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하고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주제조선의 수소탄반유로 달라진 상대의 지위와 무게를 진중하게 헤아려보고 더이상 대책없는 객기를 부리며 함부로 쉼대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주제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에 실린 지대한 의미와 엄한 경고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구태에 포로되어 세계와 압박에 집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류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후회한 언젠나 때늦은 법이다.

미국은 체제대고있는 《북전법》과 같은 폭언과 저지르고있는 망풍이 국익에 미칠것은 가 불비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2. 일본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더이상 미국의 손발이 되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에 대한 사무치는 환을 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일부러 반공화국제제소동에 앞장서 가담해온 일 일본반국국의 죄명까지 철저히 계산할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이후 맹경하여 드러낸 일본의 추태 역시 엄격히 그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이 군사대국화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알뜰한 술수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일본은 무서운 타격력과 명중효과를 가진 다종다양한 원자탄과 수소탄,

로켓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가까이 에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남조선당국은 권경도 변변치 못한 주제에 핵임지도도 못한 《강력한 군사적대응》을 제쳐대며 준수없이 웨버리지 말아야 한다.

남강도 미국을 겨냥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저 먼저 일부 재가를 치며 《강력한 대응》을 떠들어대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민망스럽게 그지없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는 남조선이나 상대하고도 핵을 개발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핵이나 전략탄도메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대항할수 있게 준비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사태와 굴종의 사슬에 배여 끌려다니는 주구의 신세에 그 누구에게 《고교스

러운 제제》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고 준수없이 짓어대지 말아야 하며 아이 들 군사놀이같은 《합동마적》따위의 초라한 대응행동으로 북사말들의 복수를 저어내지 말아야 한다.

4.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졌다면 누구든 미국의 강도적관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조선이 어떻게 되어 간고한 핵개발의 길을 택하였는지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 통치국을 위협할 것 같지 않았다면 조선의 핵문제만 해당 초 산생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세계를 핵으로 지배할 침략적야망에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1 030여차 에 걸쳐 핵시험을 강행한 미국이 저들의

핵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외무력 강화조치를 겁고드는것이야말로 북의가 정의에 도전하는 적만화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통치국에 가해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은 잘못 고른 상태에 대한 잘못 고른 선택이었다.

세계는 조선의 수소탄보유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강권과 권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서 어떤 특기할 사면으로 되는가를 남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체현하게 될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다시한번 세계의 황실에 미국이 편을 치는 불공정한 국제 질서와 부정의가 정의를 배도하는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설것을 호소한다.

주제106(2017)년 9월 7일
별 양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이룩한 공지드높이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잘하여 덕을 본다

갑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를 설립하게 건설하여 전기력을 특출히 보고있다.

최근년간에 군에서는 여러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군안의 지방공업발전과 농업생산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가고있다.

이 성과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지혜의 전력수요보장을 위한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군인민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굳건히 발휘해온 결과에 이룩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 시, 군들에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주제 102(2013)년 9월 전국 제1인민대회가 진행된 직후의 어느날이었다. 군당위원회책임인 일군인 오경준동무의 사무실에서 한가지 인견을 놓고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하게 진행되고있다.

군제신소에서 제기된 지역의 중소형발전소건설방안에 대한 토론이었다.

전국제1인민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 《제1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일으키라》를

받아내고 돌아온 군제신소일군이 며칠밤을 새우며 설계하고 대토론을 거쳐 완성한 중소형 발전소건설방안이었다.

제신소운영에서 중핵적인 문제로 나서는 전력을 자체로 해결할 이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절감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군인민들의 생각을 들었다.

사실 군에는 이미 건설하여 덕을 보고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이 적지 않았다. 읍사무를 가르킬러 오는 진동원을 리용하는 청년발전소가 건설되어 농기계 공장을 비롯한 공장들과 제신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전력을 보강하고있다.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함에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군당책임일군들의 발기에 따라 진동원 전상류의 장동, 사림리에 발전소를 일대세워 농촌마을들의 조명을 물론 학교와 식료기공기지 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하지만 군안의 전력수요는 여전히 건장하였다. 이런 속에 군제신소에서 제기된 자체발전소건설문제와 협의의에 참가한 군인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컸다.

종업원이 되고 그나마 대부분이 녀성로직인 군제신소에서 자체 발전소를 일대세운다는것은 결코 쉽게 내릴 결심이 아니

있었건다. 당의 의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자력자강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해나가기려는 그들의 공적적인 일본세가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것을 불씨로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을 전력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사업에 돌입시킬 결심을 굳힌 군당책임 일군은 그 방안을 적극 지지해 나갔다.

다음해 5월 군내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군제신소에서 일대세우는 발전소건설이 시작되었다. 군책임일군들이 직접 발벗고나서서 골짜기를 비롯한 특진지대를 보장해주었고 각종도구들을 비롯한 군과 학기소구비품들이 배당 부

문물들과 편제법에 실정에 맞는 라인설계를 맡겼으며 군안의 기술자들이 설비제작을 도와주었다.

진동원에 가지물길을 형성하여 려차로 조성하고 인제리일공사를 하여 조정지대를 건설해 가 하는 등 공사는 결코 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양 한강길, 기사강, 김장남동무를 비롯한 제신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항일의 연걸 특진정신을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자 하는 열의와 의욕을 불붙여 전력화기 등의

공사들에 한걸음이 펼쳐나갔다. 하여 자체의 려량으로 불꽃말뚝등에 기본건설을 해졌으며 기술자들의 도움에 시운전도 성과적으로 보강하고 드디어 전기생산의 첫 돌음을 높이 올리려고하였다.

이 발전소의 효용이 높을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중단없이 가동할수 있게 실적으로 건설되었다. 군제신소는 물론 다른 기관들에도 전력을 보강해 주었으므로 하여 그 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군책임일군들은 이것을 계기로 군중발전소에서 자체로 또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힘써 지원하였다. 김장남동무를 비롯한 실력적인 일군들이 건설에 전념하여 한달이내에 군내 대

규모로 발전소건설을 실현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도 군인민들이 중요하게 틀어쥔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전력보장,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머리로 놓고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인민들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핵적인 종업원들은 지난해도 최전방으로 울리드는 진동원의 마감구간에 또 하나의 새 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기하고 짧은 기간에 공사를

전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 절반이상 일감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용령공들과 제민공들은 서로 돕고 이룬에서 선제조직 전투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켰다.

시호수선사업소와 홍남배부속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부속물들과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배부아전투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전선박공장의 로동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서마지 및 첫수서머리 《황금해》로 제철의 고기배를 무어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고 동해안지역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로 무어낸 380hp급 배 《황금해-091004》호는 현대적인 어군잡기기를

단전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서마지 및 첫수서머리 《황금해》로 제철의 고기배를 무어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고 동해안지역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로 무어낸 380hp급 배 《황금해-091004》호는 현대적인 어군잡기기를

5월말까지 성년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일당겨 완수한 평천부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8월 21일 인민경제계획을 100%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련단심 백옥같은 총정의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황금해》호계열의 고기배를 새로 무었다

단 전 선 박 공 장 에서

비롯한 항해 및 탐색설비와 능률높은 어구들을 갖춘 단전선박이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냄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수산업과 황천남수선사업소 일군들, 단전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무서마지 및 첫수서머리 《황금해》로 제철의 고기배를 무어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단전선박공장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배부아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의 막이 출선 끌어내면서 로동자, 기술

다 절반이상 일감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용령공들과 제민공들은 서로 돕고 이룬에서 선제조직 전투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켰다.

시호수선사업소와 홍남배부속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부속물들과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배부아전투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전선박공장의 로동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서마지 및 첫수서머리 무어낸 《황금해-091004》호는 얼마전 바다로 나갔다.

고 부속되는 부속물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생산물의 량과 질을 동시에 보장해나가고있다.

혁신의 불바람은 봉부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시호의 지혜와 힘을 합쳐 시멘트암송계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률을 대폭 높이고 있는 정량법을 열어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적대세력들의 부패분한 요구를 철저히 지켜 부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바람을 일으키고가고있다. 이들은 설비, 장비들에 필요한 기공구기수준을 높이

기술혁신이 곧 생산의 돌파구를

소장을 비롯한 중핵기술의 기술혁신은 수차나개를 주장들이 아니라 불수강으로 제작설치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보장하면서도 수명을 대폭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은 군에 중소형발전소건설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어느 한 사업소의 지배인 김대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로력이 건장한 속에서도 군기술인공들의 편제법에 불려지도록 수심(心)의 타격을 조정하고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단단히 려를 보고있다.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실리보장을 중시하고있는 군책임일군들은 최근 당의 뜻대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핵발전소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힘써 지원하고있다. 군의 과학기술력을 불려지도록 자체실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면서 공차와 수역발전계통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그들의 창조적투쟁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일관하여 밀고나간 덕을 보고있는 이곳 군인민들의 사업정열은 지역행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높은 방면원리에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지도록 오날의 불바람을 불려지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류 기 풍

명 학 탄 광 에 서

최근 명학탄광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이룩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막강의 기계화비율을 높이고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석탄 생산현장을 돌며 높은 효율을 올릴 탄광기술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기술발전과 새 기술도입소의 기술자들이 일감에서 큰 역할을 내걸도록 조치와 지도를 펴고말았다.

이 과정에 새기술도입소에서 무용탄광장도입소만큼 생산능력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운반작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동력보장이 불려지도록 석탄생산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 운반기계를 설치와 폐기하고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

현지보도

산 판 에 나 래 지 는 혁 신 의 기 상

위원감독생산사업소 광천작업소에서

로 만들어놓는 아지따기공들, 그것을 순간에 토양으로 밀구는 사이나트기공 조정기, 미용력동무들과 산판을 오가며 화산석정지사업과 기동적인 생산조직을 집행하는 변형설, 미명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모두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이 이글거린다.

본부의 열기로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에서 미세에 대한 치솟는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진다.

산지토양에서는 김명호, 로승

《불타는 중요와 지개심》

본사기자 정 경 현

기 술 혁 신 이 곧 생 산 의 도 록 파 구 를

최근 명학탄광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이룩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막강의 기계화비율을 높이고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석탄 생산현장을 돌며 높은 효율을 올릴 탄광기술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기술발전과 새 기술도입소의 기술자들이 일감에서 큰 역할을 내걸도록 조치와 지도를 펴고말았다.

이 과정에 새기술도입소에서 무용탄광장도입소만큼 생산능력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운반작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동력보장이 불려지도록 석탄생산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 운반기계를 설치와 폐기하고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

더 높은 생산적양으로 평천부재공장에서

강구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조성된 정세

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물결은 진주강이다에서 화산석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총동원하여 불려지고있다.

일군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믿음을 가지고 생산현

에 적극적으, 적극적으로 향가하도록 분공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끄는 기수, 기관차가 되

새 기 준, 새 기 록 창 조 의 불 길



적들의 고리암살책동을 첫수서머리 일련안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라향영에 군인수지일용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역음

굴지의 만화영화창작기지가 전하는 위대한 사랑의 력사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가 걸어온 60년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더듬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영웅시와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년풍을 더욱 환희롭게 아로새기는 내 조국에는 뜻깊은 언혁을 자랑하는 일터들이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는 올해 창립 60회를 맞이한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도 있다.

행복한 날에나 즐겁한 날에나 언제나 친근한 교양자, 정다운 김동무가 되어 조국의 미래를 소중히 키우고 무명으로 헌신한 우리 생활에 웃음과 광채를 더해주는 훌륭한 창작자, 이것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기쁨까지 합쳐 온 나라 인민들이 굴지의 만화영화창작기지의 전체 성원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마음이다.

뜻깊은 창립절을 맞이한 주인공들과 함께 우리는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가 아로새겨온 60년 력사의 길고장로를 더듬어 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보살핌속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4.26 만화영화촬영소에서는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만화영화를 끊임없이 창작하였나이다.》

수령님을 60년전에도 이끌 어간다. 주체 46(1957)년 9월 7일, 바로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일꾼들에게 영웅시와 관련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다가 아동교양에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만화영화를 만들 소제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창작방향에 대해서까지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후대사명에서 우리 나라 만화

영화역사의 첫 페이지가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1957년이라고 하면 우리 당력사에 중추적인 시련이 가로막아나섰던 중요한 년대의 한갈래로 기록되어 있다.

진후쿠쿠건설에 이어 사회주의제도구축과 공업화실현의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헌신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 더욱 후성하고있던 그때 만당만혁만공과분자들은 당의 로선을 서비접하며 도전해나갔고 미제와 괴수반파괴도당의 《북진남퇴》책이 메일같이 어지럽게 들려오고있었다.

일부 사람들이 국가가 부양하는 교육비가 많기때문에 건설에서 곤난이 있다고 하면서 학생수를 절감함으로써 이사는 의지를 불고나온것이 1960년에 있는 일이고보면 1957년의 나락현상이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때 만화영화창작을 문화건설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날 현재까지도 발전된 몇몇 나라를 내놓고 보는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자국의 만화영화창작기지를 차려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춤 때어달리는 것은 그만큼 만화영화가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모험과 자금이 많이 드는 사정 과 관련된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조선국립만화영화촬영소(당시)에 만화영화연구원이 나오는데 이어 환론의 자금이 귀중한 그때 외국으로 실습대차고 하시면서 그 창작방향에 대해서까지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후대사명에서 우리 나라 만화

영화들이 소관되어 강력한 대오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만화영화창작은 시기가장조라니 워니 하는 잡소리를 치면서 종파분자들이 이 사업을 중도반란시켰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경정을 제재하여 만화영화를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혁명적인 대책을 취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자재와 원료를 가지고 우리 정서에 맞게 주제적인장에서 장작을 진행하도록 계획의 진로를 그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드디어 주체 48(1959)년에 인혁영화 《우리 동산》이 나오는데 이어 만화영화 《금도끼와 쇠도끼》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아직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작품들을 보여주시고서는 아주 좋다고 정양이 고무도 해주시고 제1차 전국 어린이대회에 노은 연단에서 그리고 붙들여 장대제연대에 높이 세워주시고 평양학생소년공원이 문을 열게 된 그날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화영화의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한걸음한걸음 성장의 자욱을 새겨온 우리 만화영화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중대 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화영화를 아동심리에 맞게 케비하고 간결하게 만들면서 도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부분의 일반적지식과 인성, 성실성, 근면성, 문화성과 동지애, 집 단주의정신과 같은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키워줄수 있는 내용을 취급하도록 고귀한 문예미학적 지침을 환이 밝혀주시었다.

세상에 만화영화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헤아릴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거의 모두가 상업적이익을 목적으로 제작된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만화영화와 결 두껍이 나라의 미래인 새 세대들을 건전하고 힘있는 자주적인간인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해온 실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사로운 사랑과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태어난 만화영화들을 정다운 선생님의 이끄는 처럼, 또 하나의 교과서처럼 보고 새겨면서 얼마나 훌륭한 세대들이 자라났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러주시던 옛이 아기를 가지고 만든 《도끼를 쳐부수시오》나 《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와 같은 만화영화들은 지금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극악무도한 도발을 일삼을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단단한 배설과 원수의 락관을 단겨주는 명작으로 되고있다.

비록 훗날 회외지는 못했지만 그 진실하고 함성같은 행동에 굳이 오히려 칭찬을 받는 《레리한 너구리》의 삼강은 모습이며 나라를 위해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는 《소년장수》의 장한 도우주에나 잊혀질수 모른다.

우리 학생소년과 인민들이 사랑하며 즐겨보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는 10부작이 나온 뒤에 이리저리 한 사정으로 하여 창작이 중단된적이 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어린이들이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편속후가 계속 나오기를 기다리고있

다. 주제영화예술사에 특기할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의 일꾼들과 함께, 예술인들이 명작창작의 선구자,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만화영화제작에서 지리적요인의 영향보다는 고정적식화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주제정의를 넓히고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할데 대한 문제, 제작과정의 현대화, 과학화, 컴퓨터화, 수자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바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우리 인민들이 이처럼 사랑하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100부작이 창작하는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는 연공관계와 주제사상성정, 이야기 구성, 거북방망이치 몹스 하나하나 그려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겨주시던 사랑그대로 창작자, 예술인들의 사정조건과 생활현전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서 대담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절세위인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은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의 일꾼들과 창작자, 예술인들의 신심과 용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현장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수많은 력사부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내놓는 한편 력사만화영화 《고수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 알수 있게 하는 력사물 주제작품들과 과학상징적, 교양적 수조양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만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산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산에 조진주주의인민공화국전 69개에 응용하여 7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의 통일전쟁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른것을 다 바치시어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감탄하는 경도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산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적혀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과 민족의 통일전쟁을 위하여 헌정성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인민교육발전적에 불멸의 공훈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산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다.

경흥관장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경흥관장립 30돐 기념보고회가 6일 열렸다.

인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영남 인민봉사총국장, 관계부, 경흥관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흥관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최상급의 봉사사업을 인겨주실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품지좋은 평등자리에 몹스 경흥관미를 잡이주신데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으며 주체 76(1987)년 9월 7일 헌정에 나오시어 봉사활동과 판매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민을 위해 한가지를 주시면 열, 백가지를 더 주고실어하시며 신치 신심, 신부들을 위한 결혼식수송차도 마련해주시고 현대적인 평등실비와 봉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 경흥관은 창립후 지난 30년 간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며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충직하게

발표할수 있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다.

축하문은 경흥관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세 가정을 이루는 수만명의 청년노동들의 행복찬 결혼식을 성의껏 차려주고 경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계급에 대한 이봉봉사, 초정봉사를 적극 진행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흥관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을 잘 무리고 모사사, 절제단위의 기술기초수준과 자질을 한층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전민적인 문화생활을 일으키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가져온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일련단식 당과 수평에 대한 불라는 경쟁과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으로 심정하는 불려우며 당의 인민봉사정적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생활력을 남겼으며 이 과이하는데 이바지한 경흥관 종업원들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대한 안전회 의 보고에 이어 부인 전민국, 일본국외 참의원 의원일행 도착



일본국외 참의원 의원일행 도착
 이노키 간지 일본국외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의원과 일행이 축하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리경수 총련 단장으로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 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민적무상치료제를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지난 7월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평안남도진료병영병영소(당시)에서 보양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지 얼마 안되어 순진시에서 살고있는 리근준정병영은 뜻밖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안남도인민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추억에는 눈가에 잊지 못할 모습들이 우뚝이 비껴올랐다. 미군수모인를 비롯한 진료병영들이 즐겨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보양소로는 평안남도인민병원 안과 의료인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진료병영들의 눈을 구체적으로 검사하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술의 한 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이다.》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나라에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우리 나라의 1992년의 제 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2011년의 제 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세번째로 대회를 주최하게 된다.

지금 수도 평양에서는 스무번째 년풍을 아로새기게 될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주기 위한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다다르고있다.

일마침 우리 당의 현대적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떠날수록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전승물로 더욱 화려하게 변모된 태권도전당준비사업이 성대히 진행되다.

새로 개건된 태권도전당은 수천명의 관람석을 가진 도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69돐경축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사랑송발표모임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 69돐경축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사랑송발표모임 《무궁화꽃이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 7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다.

모임에는 주령직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직맹일꾼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국력을 모다시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긍지와 찬가 강자에 차린 치는 속에 《빛나는 이 조선인민공화국!》 경축되다.

시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세상에 자랑 존엄하는 나라로, 가장 강위력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진시켜주시

열사복무의 길에 바쳐가는 뜨거운 정성

평안남도인민병원 안과 의료일꾼들
 눈물 속 더 찾아올수 있다는 의료일꾼들의 진심어린 통지를 받고 보니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나.

이렇게 되어 온인의 어머님의 진료병영들은 한일한시에서 일한 자료를 받게 되었다. 후에 안사실이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병영들이 즐겨보는 보양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지 얼마 안되어 순진시에서 살고있는 리근준정병영은 뜻밖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안남도인민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추억에는 눈가에 잊지 못할 모습들이 우뚝이 비껴올랐다. 미군수모인를 비롯한 진료병영들이 즐겨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보양소로는 평안남도인민병원 안과 의료인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진료병영들의 눈을 구체적으로 검사하

준비사업 활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선전화가 나왔다
 선전의 중심에는 선수권대회 상징마크가 부각되었고 옷부분에는 대회명칭과 《평양 2017》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때부터는 태권도도국의 세모에 맞게 개건된 태권도전당미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선수권대회장소와 기간도 확정되었다.

선전화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군현시 직물방병원 의료일꾼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실천하고있다.

지난 4월 평양미형에서 살고있는 김금옥녀성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의과사 리명국, 박용, 강요원 박애항동무들은 서슴없이 자신들의 팔을 걷고나섰다.

환자의 몸으로 돌리드는 이들의 뜨거운 피와 정성이 그대로 봉사아름 피어 맺혔던 환자의 맥박은 차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다시 울린 맥박소리, 그것은 인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의 피와 살 지는 죽음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리근준정병영이 병이 무리에게 보내온 편지의 줄거리였다.

하지만 안과 의료일꾼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영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평양도지니게 되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더 바랄것이 없습디다.》

우리와 단단 파장인 공훈사 박사 김일성동무의 말이였다.

오늘에야 찾아왔다는 한 반부의 지나가는 말속에 자신들의 분골을 다시금 각각하고 그대부현향의료봉사의 길을 멈출없이 이어가고있는 이들이였다.

그 나날 몇년 지어 몇몇년동안 앓을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인겨주었다.

도인의 많은 단위들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펼치기 애로도 많았다. 하지만 미침남, 김성희, 림용순, 하선영동무를 비롯한

이것이 얼마나 리근준정병영이 병이 무리에게 보내온 편지의 줄거리였다.

하지만 안과 의료일꾼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영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평양도지니게 되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더 바랄것이 없습디다.》

우리와 단단 파장인 공훈사 박사 김일성동무의 말이였다.

오늘에야 찾아왔다는 한 반부의 지나가는 말속에 자신들의 분골을 다시금 각각하고 그대부현향의료봉사의 길을 멈출없이 이어가고있는 이들이였다.

그 나날 몇년 지어 몇몇년동안 앓을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인겨주었다.

도인의 많은 단위들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펼치기 애로도 많았다. 하지만 미침남, 김성희, 림용순, 하선영동무를 비롯한

이것이 얼마나 리근준정병영이 병이 무리에게 보내온 편지의 줄거리였다.

하지만 안과 의료일꾼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영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평양도지니게 되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더 바랄것이 없습디다.》

우리와 단단 파장인 공훈사 박사 김일성동무의 말이였다.

오늘에야 찾아왔다는 한 반부의 지나가는 말속에 자신들의 분골을 다시금 각각하고 그대부현향의료봉사의 길을 멈출없이 이어가고있는 이들이였다.

그 나날 몇년 지어 몇몇년동안 앓을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인겨주었다.

도인의 많은 단위들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펼치기 애로도 많았다. 하지만 미침남, 김성희, 림용순, 하선영동무를 비롯한

